

청춘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14 제 4 회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캠프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 24일(금) [2박3일]

장소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유스호스텔

주관  대학생인문학캠프 조직위원회 

후원  INTERPARK 도서  무학





/ 인삿말

대학생 인문학캠프
조직위원장 박재익

안녕하십니까.

엄동철한 청마의 해가 밝음과 동시에 부산 해운대, 인문학 캠프를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회를 준비함에 있어 저희 캠프지기들은, 청춘에 갈망하고 낭만을 느끼는, 또 한편으로는 청춘에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을 포착했고, 그러한 삶 속에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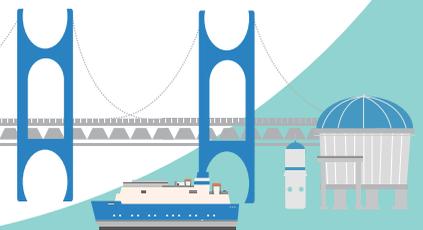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따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풍조인 사회 속에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트렌드를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펙과 취업경쟁이 만연한 사회풍조 가운데 사람들은 보다 실용성을 대표하는 경영, 공학 등의 학문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공존하는 현실에 인문학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이러한 우리의 삶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희 조직위원들의 공감대였고, 이러한 현실 자체를, 인문학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이번 인문학 캠프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준비한 “청춘 인문학, 청춘,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낭만과 열정, 그리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청춘은,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며 실존입니다. 그를 고민해봄으로써 현재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탐구하고 행동하며, 삶의 주춧돌을 세우고, 인문학에, 우리 삶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밝은 새해 시작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인문학캠프는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간직하며 앞으로의 2박 3일 동안 즐거움 가득한 캠프를 만들어나가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간직되길 바라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의 청춘이 2박 3일 동안 뜨겁게 응원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왜 인문학인가?

여러분 수도꼭지와 수도물 이야기를 아시나요?

대학생 인문학캠프
조직위원 김태우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고 대만으로 온 장제스 군대가 처음 수도 장치를 보았을 때입니다. 꼭지만 틀면 물이 팔팔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란 그들은 대량으로 수도꼭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장사꾼들에게 속은 줄 알고 가게에 쳐들어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참가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웃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벽 속에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도관을 생각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원지의 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인문학은 당장 쓸모 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또한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학, 사학, 철학은 문화와 문명의 수원지이고 그 수도관입니다. 정치나 경제도 그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 자체로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르치는 일' 외에 물질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한 국가의 구성원(국민, 학생 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재화, 이윤추구가 용이한 학문분야(경제, 경영, 법학, 의학, 과학 등)로 몰리게 되는 불균형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인문학에 기본을 둔 올바른 윤리적 가치판단 능력 등을 퇴색하게 만들었으며, 불법적으로 혹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오로지 물질적 이윤추구만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4회 인문학 캠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개개인의 도덕성, 윤리성 회복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필요성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수도물과 수도꼭지를 연결해주는 파이프, 즉 매개체가 되어 메마른 풀잎에 한 방울의 귀중한 이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인문학캠프란?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캠프는 2014년 1월로 4회를 맞고 있는 대학생 기획&컨설팅 커뮤니티 Right People의 주최, 해운대구와 인문학캠프 조직위원회 주관 하에 열리는 2박3일 간의 대학생 참여형 인문학 행사입니다.

기획&컨설팅 커뮤니티 RP는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 감소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의 부재, **인문학에 대한 접촉 기회의 가뭄 등이 문제시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①지식전달형의 일회성 인문학 강좌를 벗어난 『참여형 캠프』를 통해 대학생의 인문학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흥미와 관심 유발 ②인문학 전문가와 접촉을 통해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올바른 인문학 독서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 ④전국의 대학생이 모여 인문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⑤서울·경기 수도권에 편중된 인문학 교육기회 편차 해소** 등의 여러 효과를 목적으로서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인문학에 다가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 하고자 인문학캠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RP는 인문학 캠프가 '대학생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캠프를 지향하는 만큼 참가자 혹은 (위치적 한계 상 부산지역의)모든 대학생이라면 언제든지 RP 및 조직위원회와 함께하여 인문학 캠프를 만들어나가기를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문학캠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며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캠프는 2012년 2월 제1회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제3회 인문학캠프까지 중국 북경대학교, 한국 교통대학교, 카이스트, 숙명여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약 60여개의 대학에서 3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제2회, 제3회 인문학 캠프 개최사진]

인문학캠프연혁

- 2012년 2월 제1회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캠프 개최
(주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인문학 이야기)
- 2012년 8월 제2회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캠프 개최
(주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 2013년 1월 제3회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 캠프 개최
(주제: 인문학의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동서양의 국가관을 배우기)

이번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 캠프의 주제는 **‘청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 캠프일정

1일차 1월 22일(수)

시간	프로그램 및 강연 일정	비고
13:00 - 14:00	개회식	
14:00 - 18:00	해운대구 투어, 끝이 있기전에 시작이 있다	
18:00 - 19:00	석식	김치찌개
19:00 - 21:00	기조강연: 정운찬(前 국무총리) 강연주제, "청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1:00 -	휴식 및 취침	

2일차 1월 23일(목)

시간	프로그램 및 강연 일정	비고
07:30 - 09:30	조식 및 휴식	뷔페
09:30 - 10:00	공연	
10:00 - 12:00	두번째강연 : 최영환(엔트리대표) 강연주제, "탁월한 청춘 Self-Motivation"	강연2
12:00 - 13:00	중식	새우볶음밥
13:00 - 13:30	OX퀴즈, 청춘 갈림길에 서다	
13:30 - 15:30	세번째 강연:김영하(소설가) "우리가 책을 읽는 진짜 이유"	강연3
15:30 - 15:45	휴식	
15:45 - 16:45	레크레이션(Recreation)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팀별게임
16:45 - 17:00	휴식	
17:00 - 18:30	청춘톡톡(TALK! TALK!)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조별토론
18:30 - 19:30	석식	갈비탕
19:30 - 22:00	프레젠테이션 청춘,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발표대회준비
22:00 -	취침	

3일차 1월 24일(금)

시간	프로그램 및 강연 일정	비고
08:00 - 09:30	기상 및 조식	뷔페
09:30 - 12:30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발표대회
12:30 - 13:00	폐회식	시상 및 폐회



대한민국인문학캠프의 프로그램 소개 및 강연소개

2014 제4회 청춘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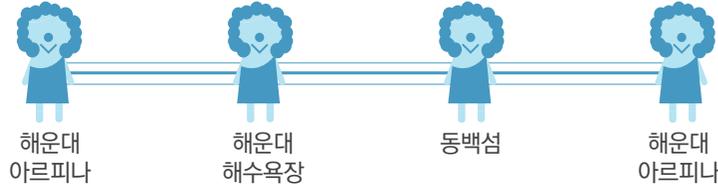
/ 끝이 있기 전에 시작이 있다

바다와 함께 하는
해운대구 투어

진행방식

출발지: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2pm)

미션: 만보기를 높여라! 노래에 맞춰 shake it shake it!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상위 다섯 팀 먼저 출발합니다.



코스설명

첫번째 코스, 해운대 해수욕장 [끝이있기전 시작이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

미션: 인문맨이 제시한 지령에 따라 사진을 찍어오세요. 단, 반드시 모든 조원들이 한 컷에 등장해야 합니다. (첫번째코스의 교통정보 - 지하철 : 해운대역에서 하차, 버스 : 38번, 181번을 이용 해운대역에서 하차)

두번째 코스, 동백섬 [끝이 있기전 시작이 있다. 동백섬]

미션: 동백섬을 한 바퀴 돈 후 인문맨이 내는 퀴즈 중 하나를 맞추면 미션 성공! 단, 세 번 이상 실패 시 스마트폰 이용 찬스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코스,자유투어

미션: 자유투어를 하며 조원들과 함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남겨오세요.

도착지,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6pm)

미션: 반드시 여섯시 안에 들어오세요.

투어 리스트&교통정보

해운대 달맞이: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이며 겨울 해변에서 차분한 휴식을 취하기에 좋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기준 왼쪽으로 도보 20~30분)

광안리: 오감이 즐거운 광안리 해수욕장은 다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카페, 횃집과 최근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가 형성 되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대교는 뛰어난 조망시설로 밤하늘을 수 놓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안역에서 하차 후 도보 10~15분, 총 28분 소요)

영화의 전당, 신세계백화점, 나루공원 : 한적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나루공원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영화의 전당은 매년 부산 국제 영화제의 전용관이며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한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함과 동시에 수 많은 관광객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하철: 센텀시티역에서 하차, 약 10분 소요, 버스: 181번, 63번, 40번을 이용 센텀시티 벅스코역에서 하차, 약 15분 소요)

/ 청춘, 갈림길에 서다.

청춘들과 함께 하는
OX게임

진행방식

쉽게 접해보셨을 집단 **OX 퀴즈**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행사장을 O공간과 X공간으로 양분하고 참가자 여러분들이 양쪽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문제는 **최종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혹은 최대 10~15문제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 2.문제가 PPT 슬라이드와 사회자의 설명에 의해 주어지며 참가자 여러분들은 O와 X 중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사회자가 제한하는 시간 안에 가서 서면됩니다.
- 3.답이 주어지고, 그렇게 추려진 정답자들 중 **최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것입니다.
- 4.상황에 따라 패자부활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OX 퀴즈 문제 예시

1. 2013년 기준 20대의 일자리는 작년 대비 줄었다?
 2. 201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미만이다.
 3. 2013년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60% 이상이다
- (이 문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승을 원한다면 한 번 찾아보세요 :)

/ 청춘 TALK! TALK!

청춘의 고민을
나누다

진행방식

1. 10명 미만의 소그룹을 형성합니다. (6-7명)
2. 각 그룹별로 3통의 **청춘에 대한 고민의 편지**가 배송됩니다.
3. 각편지 마다 청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주제가 제시되며, **각 그룹은 그 주제에 맞는 대화**를 나눕니다.
4. 매칭 스텝은 중간 중간 각 그룹의 진행상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고하며, 이는 중앙 스크린(카카오톡 PC버전)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5. 이처럼 한 시간 동안 각 그룹은 세통의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6. 대화가 끝난 뒤, 지금까지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주제어인 **'청춘에 대한 고민'을 한 종이에 표현**하며(그림, 문구 등), 이를 토대로 각 그룹마다 **2분 스피치**를 합니다.

편지의 내용

1. 삶의 가치관과 관련된 딜레마
2. 꿈 vs 현실 / 정말로 하고 싶은 일 vs 외부상황에 의해 할 수 없이 하는 일 / 외부상황(부모님의 기대, 자금, 주위사람들의 염려 등)
3. 내가 생각했던(꿈꿔왔던) 대학생활 vs 실제 대학생활 /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4. 인간관계, 지금 겪고 있는 인간관계(가족, 친구, 연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고민
5. 지금 청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6. 버킷리스트 작성(10개), 이유는?
7. 자유주제 - 여러분의 고민은?

(조건 : 편지 속 주인공의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 청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청춘**은 무엇입니까?

청춘에게는 두 이미지가 있습니다

낭만과 열정을 누리는 순간 현실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청춘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행방법

둘째날 저녁 발표준비 (석식 후 ~ 취침 전)

일정한 수의 참가자로 구성된 조원들이 저녁식사를 먹은 후부터 발표를 준비합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해 자신만의 '청춘'을 나타냅니다.** 조별로 발표할 스토리를 ppt, 영상, 전지, 연극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 청춘이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신념,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를 생각해봅니다.

셋째날 발표

각 조별 10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둘째날 저녁 추첨으로 선정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0분 내외의 발표 후 간략한 Q&A를 진행할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청춘'을 공감하는 질문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시상식

각 조가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든 캠프참가자와 스텝들이 가장 공감가는 내용의 청춘 이야기에 투표를 합니다. 사람들의 공감지수를 많이 얻은 조가 '공감상'을 수상합니다. 또, 공감지수와 상관없이 발표를 재밌고 유쾌하게 진행하고 참가자와 스텝의 호응도를 가장 많이 끌어낸 조에게 '인기상'을 수상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에 투표를 할 수 없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조별로 표시된 용지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공감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조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정운찬 (前 제40대 국무총리)
청춘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출 생 1947년 충남 공주 출생
소 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 령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경 령 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저 서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 가슴으로 승부하라 등



최영환 (엠트리대표)
탁월한 청춘 - Self Motivation

출 생 1981년 부산 영도 출생
소 속 비영리기구 엠트리(Mtree) 대표
학 령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경 령 미국 비영리기구 Mtree, INC 대표, Outofboat 대표, UNESCO APCEIU 최연소 패널
건군 육군뮤지컬 프로듀서
저 서 우유곽대학을 빌려드립니다(2010)



김영하 (소설가)
우리가 책을 읽는 진짜 이유

출 생 1968년 강원 화천 출생
직 업 소설가
학 령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수 상 제44회 현대문학상, 제16회 이산문학상, 제4회 황순원 문학상, 제35회 동인문학상, 제22회 만인문학상, 제36회 이상문학상 등
저 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옥수수와 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등